

세월 묻어나는 갤러리 한옥의 멋진 변신

대인동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집'

큐레이터 문희영씨 어릴적 집 개조 개관
“근원 찾아가는 작품 선 보이고 싶어”
내달까지 개관전 ‘다시 호흡하는 시간’



1989년, 14살 중학교 소녀는 전남여고 앞 오래된 한옥에 살며 화가로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대학교 4학년, 이 집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았다. 그 후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한옥은 이제 멋진 갤러리를 갖춘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오랫동안 큐레이터로 활동했던 그 때 그 소녀는 ‘예술공간 집’을 열고 삶의 공간에 예술의 향기를 불어넣으려 한다. 1967년부터 50년간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졌던 한옥의 멋진 변신이다.

29일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정문 앞 골목에 문을 연 ‘예술공간 집’을 찾았다. 골목에 들어서면 열췌 입구처럼 보이는 통유리와 나무 장식이 눈에 띈다. 진짜 입구는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 나온다. 낡은 문을 그대로 활용한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 된다.

마당을 지나 만나는 갤러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넓다. 전체 53평중 갤러리가 들어선 공간은 25평. 안방과 주방, 건넌방 등이 있던 곳이다. 마루 쪽에도 벽을 만들어 작품을 걸었다. 낡은 서까래는 세월의 흐름과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닫이 문의 흔적과 주춧돌도 모두 그대로 뒀다. 또 마당의 붉은 벽돌 창고는 미니 커피숍으로 만들었다.

‘예술공간 집’의 대표 문희영(40)씨는 2010년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10년간 큐레이터로 활동했다. 조선대 미술학과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던 그녀는 박사 과정 4학기부터 큐레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99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강운은 60주년 전에 참여한 게 시작이었다.

2015년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노랗게 물

들이다’(사계절 간)를 떠나기도 했던 문씨는 공공도서관 등에서 미술 관련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조선대 미술대에 출강하고 있다. 문씨는 ‘예술공간 집’에서 ‘아트 브런치’와 ‘아트 런치’ 형식의 미술사 강의, 소규모 강좌,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씨는 대관전과 함께 작가의 근원을 찾아가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을 열 계획이다.

“집이라는 게 삶의 근원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좋지만 지금의 작가들을 만든, 그 근원을 찾아가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싶어요. 서양미술사를 강의할 때면 300~5000년된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작가들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미술사에

서 ‘흐릿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복원해내고 싶습니다.”

문씨는 “미술관은 미술관 대로 역할이 있고 뽕뽕 브런치 처럼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안공간들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예술공간 집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미술 매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음악은 세월을 지나 계속해서 들리는데 보물같은 작품들은 왜 작가의 작업실에, 창고에 갇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80년~1990년대 작품들에는 그 때 당시의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지금 봐도 참 좋아요.”

개관 기념전 ‘다시 호흡하는 시간’은 문씨의 오랜 꿈이 담긴 기획으로 개관 의도를 그대로 담아 인상적이다. 특히 지역 갤러리들이

뚜렷한 컨셉을 갖고 기획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번 기획전이 무엇보다 반갑다. 집과 낡은, 조금은 오래된 작품(1991~2017년작)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집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외적 사유를 담은 작품을 떠올리며 기획했다’는 그녀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씨가 20대 시절부터 좋아하고, 아꼈던, 그래서 ‘꼭’ 다시 보고 싶었던 작품들을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가져와 전시했다.

지금은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는 정선휘 작가의 2001년 작 ‘살 속에서 새벽을 열다’. 푸르스름한 새벽 속을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바로 옆에 걸린 박일구 작가의 사진 작품들은 우연찮게도 정 작가가 화폭에 포착한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대학교 3학년 때 마니프에서 처음 접한 후 꼭 다시 보고 싶었던 공성원(성군관대 교수)의 ‘먼지그림-나무’는 작가가 자신의 집에 쌓인 먼지로 만든 작품이다.

조현택 작가가 앵글에 담아낸 빈집의 풍경들, 오래된 바로 이 한옥에서 벌어졌을 것 같은 일상의 모습을 담은 조병철 작가의 ‘불손남’, ‘집, 꿈, 숲’이라는 단어가 연속 반복되는 정승은 작가의 작품 등 전시작 하나하나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겼다. 또 함께 확장시절을 보냈던 조운성 작가의 초창기 시리즈 ‘씨앗으로부터’,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일상 그대로의 모습’이 담긴 임현채 작가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전시는 30일(오프행사 오후 5시)부터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문의 062-233-334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여고 정문 앞 골목에 문을 연 ‘예술공간 집’에서는 12월 30일까지 개관 기념전이 열린다.

곽수봉·김영화...광주미협 회장 선거 2파전

27일 후보 등록 마감...12월 16일 회원 844명 투표

광주미술협회 제11대 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광주미협은 최근 정광주 전 광주미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명 규모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 봄부터 일직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던 곽수봉(한국화·한국미협 부이사장) 작가가 등록을 마쳤고 서양화가 김영화(대한국전협회미술가협회 이사) 작가도 출

사표를 던졌다. 선거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정기 총회 현장에서 진행되며 정경 발표 등을 진행한 후 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광주미술협회 선거 투표권은 회비(년 3만원)를 낸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최근 마감 결과 전체 회원 1800여명 중 투표권을 갖게 된 회원은 844명으로 알려졌다. 다수표를 받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4년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곽수봉

김영화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12월호



영국 서점·광주 맛집... 문화가 된 오래된 가게

한 해 마무리...해넘이·해돋이 명소 소개

‘오래된 가게’는 주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 그 자체다. 비록 낡고 시대에 뒤떨어졌지만 사람 냄새와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12월호는 특집 ‘오래된 가게, 문화가 되다’를 통해 멀리 영국의 오래된 서점들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오래된 가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2017 정유년 달력도 이제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남은 한 달을 후회없이 보내고 다가오는 2018년을 위한 계획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때다. 가족과 함께 해넘이 해돋이를 떠나면 좋을 일출 일몰 명소를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연극인 박정자씨다. 일본의 어느 연극 평론가는 그녀를 두고 ‘서랍이 많은 배우’라고 평했다. 그만큼 무대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연말 뮤지컬 ‘벌리 엘리엇’ 할머니 역을 맡은 그를 만나 55년 연극인생에 대해 들었다.

누구나 상상해보지만 누구나 느껴볼 수 없는 기쁨. 2017프로야구 정규시즌에 이어 한국시리즈 정상까지 오르면서 11번째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 선수단 이야기다. 김여울 스포츠 전문 기자와 함께 2017 마운드의 박하여로들의 1년을 되돌아본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한 기획연재 新 남도택리지 두 번째 여정은 ‘아리랑의 고장’ 진도다. 해안도로를 따라 겨울바다를 감상하고 한적한 마을에 들러 먹는 굴구이는 꿀맛이다. 토요일속여행과 진도개 묘기를 보며 흥을 돋우고 세방낙조 일몰을 보며 한해를 마감해 보자.

‘책방별곡’이 찾은 여섯 번째 동네 책방은 충북 괴산 미루마루의 유쾌한 가정식 서점 ‘숲속작은책방’이다.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은 사절, 들어오면 꼭 책 한권은 구입해야” 한다는 책방지기 김병록씨의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본다. ‘문향이 숨 쉬는 문화관을 찾아서’는 목포 갯바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목포문화관을 소개하고 ‘트렌드 따라잡기’는 길거리에 나와 타인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리 리스닝’(Free Listening)을 소개한다.

여행 칼럼니스트 노중훈의 ‘꿈의 여행’ 활강의 즐거움이 폭발하는 캐나다 앨버타, 대중문화 평론가 배국남이 들려주는 아이돌 외국인 멤버 급증의 원인과 문제, 문화평론가 정운수의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vs.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